

# 가정의 달 5월, 알고 가면 더 재미있는 가족 축제! 나비 보러 갈까? 튤립 축제 갈까?



5월이 되면 가장들의 어깨는 무거워 진다.

변덕스러운 날씨도 점차 따뜻해져 야외 활동을 하기 가장 좋은 계절인 5월, 활동적인 아이들과 SNS를 통해 멋진 사진을 올려 지인들에게 자랑하고픈 아내를 위한 가장 최적의 여행 솔루션을 계획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봄꽃과 함께 아이도 즐겁게 뛰어 놀 수 있고 아내의 마음도 잡을 수 있는 여행지 2곳을 KINAC이 소개한다.

## 나비아~ 나비아~ 나비와 함께 즐기는 함평나비대축제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몰랐던 함평이라는 지역을 알린 축제가 바로 '함평나비대축제'다. 2018년 올해로 꼭 20번째를 맞이한 '함평나비대축제'는 곤충을 주제로 한 국내 여러 축제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축제이기도 하다. '함평나비대축제'는 가족,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한번쯤 다녀갔을 정도로 교육적인 효과도 커 방송이나 신문, 잡지와 같은 지면에 많이 소개되기도 한 지역 축제다. 지역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알찬 공연,



전시 프로그램과 세계 석학들을 초청한 학술 행사 등을 마련해 2018년 대한민국 축제콘텐츠대상에  
서 축제글로벌 명품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런 유명세로 2017년에는 30만 명이 이 축제에  
참가하기도 했다.

올해 열리는 함평나비대축제는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11일간 함평엑스포공원과 함평천생태습  
지, 화양근린공원 일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지난 19년간의 경험을 집약한 20돌 기념  
행사로 준비되었는데, '함평나비! 청년이 되어 세계로 비상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  
이 진행된다. 축제 기간동안 13개의 전시프로그램과 매일 4~5개가 넘는 공연 및 행사가 축제 행사장  
과 함평군 일대에서 진행되며, 아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축제기간 내내 다양하게 진  
행된다.

여유로운 일정으로 행사 기간 내내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면 좋겠지만 짧은 시간을 알  
차게 보내고 싶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좋을까? 우선 전시 프로그램은 가능한 많이 보는 것  
이 좋다. 하지만 그래도 골라야 한다면 '나비·곤충생태관'과 '숲속의 곤충마을'을 추천한다. '나비·곤  
충생태관'은 호랑나비외 22종 5만마리의 나비를 전시하고 있으며 알에서부터 애벌레, 번데기로 이  
어지는 나비 애벌레 전시관에는 10종 3만5천마리를 전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번데기에서 나비로 탈피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나비탄생관도 있어 생명의 신비  
로움을 아이와 함께 나눌 수 있다. 또한 시간을 잘  
맞추면 야외 나비 날리기 체험 행사도 참여할 수  
있다. 나비 날리기 체험 행사는 평일 1회, 주말 2  
회 진행되며 시간은 평일에는 1시 30분, 주말에  
는 11시와 1시 30분에 진행된다. 체험행사 참여  
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행사 30분 전부터 접수  
를 시작하니 전시관에서 구경을 하다 체험 행사  
전 미리 접수를 해 놓는 것이 좋다. 공연 프로그램  
으로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이글스 비행단의 에어쇼와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장 주무대에서 공연되는 '소림사 무술공연'도 주목할만 하다. 2개 공연 모두 아이들  
이 좋아할만한 행사다. '소림사 무술공연'은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 2회 진행된다.



▲ 함평나비대축제의 대표적인 나비인 호랑나비 사진 출처:함평군

**행사 홈페이지** : <http://www.hampyeong.go.kr/butterfly/>

## 세계 5대 튤립 축제! 태안 세계튤립축제

3~4월 봄꽃구경을 못 했다면 지금 소개하는 이 곳을 주목해 보자.

WTS(World Tulip Summit)로부터 2015년과 2017년, 세계 5대 튤립축제로 선정된 '태안 세계튤립  
축제'는 다양한 색상을 뽐내는 수백만 송이의 튤립을 만나볼 수 있는 세계적인 꽃 축제 전시장이다.



이 외에도 축제 기간동안 동물 먹이주기,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축하공연등도 예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반려 식물을 골라 선택할 수 있는 힐링 체험 프로그램도 있어 내 성향에 맞는 식물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세계튤립축제의 입장권은 코리아플라워파크 홈페이지([www.koreaflowerpark.com](http://www.koreaflowerpark.com))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사전 예매할 경우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다.

**행사 홈페이지** : <http://www.koreaflowerpark.com>

글 : 최인경 여행칼럼니스트

이번 축제는 4월 19일부터 5월 13일까지 28일간 진행되는데 '꽃으로 피어난 바다, 대한민국이 빛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튤립을 만나볼 수 있다. 작년까지 네이처월드에서 개최되던 '태안 세계튤립축제'는 올해 아름다운 해안으로 유명한 안면도 꽃지 해안 공원에서 개최된다. 아름다운 튤립과 함께 시원한 바다까지 즐길 수 있어 1석 2조의 축제를 즐길 수 있다.



▲ 그린스프릿 품종의 튤립 사진 출처 : 코리아플라워파크